

기독교상담에서 성격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

강경미 교수

(Ph.D., 그리스도대학교)

국문초록

인간의 정신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와 행동, 적응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은 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성격은 한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성격특성에 따라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한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의 성격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은 성격이 변화하면서 자기 안에서 성숙을 경험하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일반상담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자 역시 내담자들이 성격문제로 자신의 죄와 양심, 고난 및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와 회복은 심리치료나 상담으로 단 기간에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 한계성을 인정한 후에 기도와 간구, 회개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복음에 근거한 성격과 인생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문제 해결과 함께 영혼구원을 목표로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격의 다양한 차원에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격의 변화와 성령

의 역사”라는 주제로 성격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의 성격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구원의 과정과 성령의 방법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중심단어 : 성격, 기독교상담, 성령, 성령의 역할, 영혼구원

I. 여는 글

인간의 행동은 주로 개인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성격은 행동을 결정하는 내적 안정된 요소이며, 한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형이나 체형, 성격검사 등으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의 성격이 심신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부터 성격은 단순히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을 넘어 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의 성격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지나친 개인주의는 현대인들의 성격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생활전반으로 가속화되면서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해 생활의 부적응은 물론 인간관계장애 및 심리장애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성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긍정적(건강한)인 성격과 또한 인간에게 경고의 의미, 타락의 의미로 주신 부정적(불건강한)인 성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성격 역시 긍정적인 성격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성격은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 성령체함과 함께 구원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정신(Psyche)과 영(soul, spirit)은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실 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갖춘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은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하는 기독교상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담자 성격의 치유와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심리학적 측면에서 성격의 정의와 형성요인, 건강한 성격과 불건강한 성격을 등을 기술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격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함께 기독교 상담을 통해 인간의 성격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방법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성격의 심리학적 이해

1) 성격의 어원

성격(性格)은 한자어로 성품의 성(性)자와 격식의 격(格)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성격이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내적인 성품이 외적으로 격식을 차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어로 성격은 ‘personality’로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persona)에서 유래한 단어로 ‘per’는 ‘~를 통해서’ (through)라는 의미이고, ‘sonare’는 말하다(speak)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격(personality)은 ‘persona’와 같이 어떤 사람의 참모습이라기보다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이 인간이 사회장면 속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특성 및 이미지를 의미한다.¹⁾

2) 성격의 정의

성격이란 각 개인이 타인과 환경에 대해 지각하고 사고하는 독특한 성향과 방식으로 개인을 특징지을 수 있는 일관된 행동양식이다.²⁾

성격의 개념과 정의는 성격을 연구하는 이론가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예로 Allport(1961)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다”라고 했고³⁾, Maddi(1996)는 “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 공통성과 차이를 결

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성과 특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행동은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가지며 어떤 순간의 사회적, 생물학적 압력의 단일한 결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없다”고 정의했다.⁴⁾ 또한 Ryckman(2000)은 “성격은 개인이 소유한 일련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정의했다.⁵⁾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성격에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Pervin(1996)에 의해 제안되었다. Pervin은 성격의 개념을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양식(일관성)을 제공하는 인지와 정서 및 행동들의 복합적인 조직으로 성격은 신체처럼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성(유전)과 양육(경험)을 반영한다. 또한 성격은 과거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및 미래의 구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⁶⁾. 이와 같이 성격은 각 개인의 원형, 자아강도, 욕구, 기대, 태도, 습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독특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격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의 기본대상이 되고 있다.⁷⁾

3) 성격의 형성요인

성격은 인간의 사고활동 의지활동, 행동과정 등을 통합하여 한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개인과 환경으로 구분한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타고난 체형이나 유전적인 소인 등 생물학적 요인이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및 개인의 성별 등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인이다.

(1)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유전은 성격의 결정에 선천적인 요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예로 신생아기의 활동수준과 규칙성, 인내성은 성장과정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들은 기질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성격이 유전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Cattell(1971)은 10~15세의 쌍생아 600여 명에 대한 연구에서 성격의 안정성, 개방성, 협동성 등이 유전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Gottschadt(1978)는 활

동성, 개방성, 계획성, 활발성 등 성격의 감정적 기초에 해당되는 성향과 기분은 유전적 경향이 있다고 했다.⁸⁾ 그러나 성격은 완전히 유전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성격의 어느 부분이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적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2) 내분비선

내분비선에는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선, 뇌하수체, 성선 등이 있으며, 각각의 내분비 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내분비선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절은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하게 되며, 이 같은 기능의 균형 혹은 불균형은 기질과 정서, 성격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각 내분비기관의 균형과 조절 역시 정서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⁹⁾ 그 예로 후두 측면에 있는 갑상선(thyroid gland) 기능 이상으로 분비가 과잉되면 불안하고 침착성이 없고 성격이 조급해지고 과격해진다. 부갑상선(parathyroid gland) 기능의 감퇴는 흥분과 신경질 및 거부 경향을 높이며, 뇌하수체(pituitary gland)의 ACTH호르몬의 과잉 분비는 적극성과 공격성을 증대시키고 반대로 과소 분비는 태만하고 순종적인 성격현상이 나타난다. 부신선(adrenal gland)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손(cortison)의 부족은 성적 흥미결여, 판단력 부족, 기억불량, 우울, 협동성 결여의 특성이 나타나고, 아드레날린 부족은 우울의 경향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⁰⁾

(3) 습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행동은 별다른 노력 없이 본능이라고 할 만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한다. 습관은 비교적 초기에 형성되며, 습관이 통일되면 개인의 습성이 된다. 그 예로 유아기 때 식사, 수면, 착의, 청결 등의 기본생활 습관이나 아동기의 사고방식, 의사소통 습관, 대인관계 태도 등은 성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습관은 성격의 기초가 되며, 양호한 습관은 건강한 성격을 형성한다.¹¹⁾

(4)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기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나 생활양식이 결정되며, 이는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아는 먼저 영아기에 자기의 신체를 의식하게 되는 신체아가 형성되고, 자아의식이 외부로 향하게 되는 유아기에는 자기 소유물을 타인과 구분하는 소유아가 발달한다. 아동기에는 사회관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아가 형성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주장하기 위한 정신아가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들은 환경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성숙과 학습에 의해서 개인의 자아의식 중에 어느 자아가 우세한가에 따라서 특정한 유형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¹²⁾

(5) 욕구와 동기

인간에게는 생리적·사회적·자아적 욕구가 동기가 있으며, 심리적 긴장 상태를 초래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은 목표를 달성해서 심리적 만족으로 긴장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표달성 실패로 욕구불만이나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욕구불만이나 욕구좌절이 지속되거나 또는 욕구의 대립으로 갈등을 유발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³⁾

(6) 환경적 요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동일한 문화라고 해도 거주지역과 사회계층에 따라 생활조건이 다르고 부모와 가족관계 또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행동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성격형성은 가족관계와 가족구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① 부모 및 가족관계 : 가족관계의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관계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 이외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가족 중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부적 또는 방임인 경우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지로 아동들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 불만, 증오, 열등감의 원인이 되면서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부모들은 자녀교육문제에 지나친 열성으로 자녀가 삶의 주체로 살기보다는 학업위주로 성적과 사회적 출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학업강요나 과잉기대 역시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격형성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② 가족구조 : 현대사회는 핵가족 단위의 가정이 보편화되어있고 자녀의 수가 줄어 독자, 편모 등 최소의 가족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구조를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하고 가족의 형태가 아동의 성격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핵가족 아동의 유병율이 8.0%로서 확대가족 아동의 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들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아동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핵가족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모의 이혼, 별거, 잦은 언쟁 등의 문제 역시 아동의 정서뿐만 아니라 성격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⁴⁾

③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 아동과 관련된 사회계층 효과의 연구는 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지능저하, 호전성, 반사회적 성격, 우울증 등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계층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층이 낮을수록 자녀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이 통제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¹⁵⁾ 이러한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해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반사회적 성격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7) 동년배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되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지위와 역할, 집단의 분위기와 집단표준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행동특

성과 성격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개인은 집단에 소속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 특별한 소속감을 가지며,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 또한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명랑하고 쾌활해질 수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다. 집단구성원과 집단분위기의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8) 대중매체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회화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서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한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매체의 문화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성격과 행동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예로 대중매체인 TV, 영화, 도서, 잡지, 만화 등의 범죄성과 폭력성, 비도덕적인 내용은 현재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증가원인으로 간주되면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대중매체가 사람들의 성격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⁶⁾

(9) 생물학적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인간의 성격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환경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로 성격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기초가 형성되지만 그러한 유전적 소인(素因)이 환경적 경험이나 자극의 의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유아기에 어린 아이들은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성숙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부모나 가족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어지는 환경조건이나 심리적 자극에 따라 성격과 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독특한 성향과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 하면서 개인별로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경험의 결과로 한 개인의 개성 있는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¹⁷⁾

4) 건강한 성격

적절한 환경의 조성과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키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환경적 측면을 볼 때 어린 시절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건강한 가정환경, 민주적인 양육방식, 양호한 습관 및 태도 형성은 건강한 성격에 기본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성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건강한 성격의 사람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담이나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간자체를 가치 있는 존재로 수용하여 다른 사람과 비합리적, 투쟁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실존의 의미를 지각하여 독자적인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 삶에 책임을 진다.

넷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진 개인임을 인식하여 독창성을 발휘한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섯째, 현실적인 자아상을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여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는 노력보다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한다.

둘째,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올바른 자아상을 갖도록 한다.

셋째,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와 함께 정직한 자아를 갖도록 한다.

넷째, 자아의 수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절하고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킨다.

다섯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

여섯째,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부모·자녀와 가족관계를 유지한다.

5) 문제성격의 유형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성격의 유형으로는 임상심리학적으로 치료가 반드시 요구되는 성격장애에서부터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성격문제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에리히 프롬의 비생산적인 성격을 예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으며, 이 네 가지 유형 안에 모든 문제의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롬은 건강한 성격의 지표를 생산적 지향(生産的 指向)이라고 보고 성격 상담의 목표를 여기에 맞추고 있다. 지향성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한 개인의 고유한 관계양식을 의미하며, 대별해서 생산적 지향(生産的 指向)과 비생산적 지향(非生産的 指向) 두 가지로 구분했다. 프롬은 생산력을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비생산적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내적 자원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산적 지향의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리히 프롬은 「그를 위한 인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진 4가지의 비생산적인 성격을 서술하고 있다.¹⁹⁾

첫째, 수용적(receptive) 성격으로 이 성격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진리와 선의 원천은 외부에 있다고 믿고 모든 일에 타인의 생각과 선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따라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오직 따라만 간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성격이다.

둘째, 착취적(exploitation) 성격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수용적인 성격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진리와 선의 원천은 외부에 있다고 타인의 생각과 선택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착취적인 성격은 수용에 그치지 않고 힘과 책략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성공을 빼앗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성격이다.

셋째, 저장적(hoarding) 성격으로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은 수용적, 착취적인 성격과는 정반대로 세상의 진리와 선의 원천은 자신 안에 있다고 믿고 타인의 생각과 선택은 무조건 부정하고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다.

넷째, 시장적(marketing) 성격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면에서 시장의 상품 판매와 같이 자신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허식에 만족해서 남을 따라하거나 무조건 유행을 쫓아가는 주관이 없는 성격이다.

2. 성격의 성경적 이해

인격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물론 가정이나 직장, 건강,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배에 실려 있는 화물과 같은 것으로 인격이라고 하는 배가 파선되면 그 모든 것은 잃게 되는 것이다. 다윗을 아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으며, 특히 그의 인격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 예로 미련한 나발이란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윗이 살인자가 될 뻔했던 위기(삼상 25:32-34)에서 구해주셨다. 또한 블레셋 사람의 편에서서 다윗이 자기민족과 싸울 뻔 했던 위기(삼상 29:8-11)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다윗이 끝없이 죄악에 빠져가고 있을 때 나단을 시켜 책망해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인격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 각자의 인격을 지켜 주신다(벧후 1:5-9).²⁰⁾

1) 성격의 성경적 개념

성경에 제시된 인간의 성격에 대한 개념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역시 유한하지만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인적 성격은 하나님과 동질적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Psyche)과 영(soul, spirit)은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의 통합을 얻기 위해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심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실 된 성격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 개개인을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²¹⁾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출산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성격을 타고난(창 25:21-27)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며, 환경의 영향을 받고(창 37:2-4)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창 25:29-34).

2)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성격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얼굴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의 성격도 각 개인마다 다르게 주셨으며, 이를 개성(個性)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

님은 각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성격과 함께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성격도 함께 주셨다.²²⁾

하나님은 성도가 갖추어할 성격으로 거룩함(신 6:7), 경건함(시 4:3), 선함(눅 6:45), 어질고 자비로움(시 112:4 ; 마 5:7), 의로움(시 112:4 ; 요일 3:7), 심지가 굳음(시 112:7 ; 골 1:23), 담대함(잠 28:1), 온유함(마 5:5 ; 딤후 2:25), 흠이 없고(엡 1:4 ; 빌 2:15), 요동치 않음(마 7:24 ; 엡 4:14)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도가 버려할 성격으로 목이 굳음(신 9:13 ; 행 7:51), 교만함(시 10:2-4 ; 욥 1:3), 완고함(잠 1:29 ; 겔 3:7), 가증함(잠 15:9 ; 딤후 1:16), 강포함(잠 16:29 ; 딤후 3:3), 위선적(사 29:13 ; 딤후 3:5), 파괴적(사 59:7), 패역함(행 2:40), 탐욕스러움(롬 1:29), 이기적(딤후 3:2), 조급하며 자고함(딤후 3: 4)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성격특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개성화되고 안정적이며, 기독교의 윤리성을 갖춘 성격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고히 하여 성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성격을 의미한다.²³⁾

3. 기독교상담과 성령

일반상담에서 상담자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이론과 실재를 학습하고 훈련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적응을 도와주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 중심의 상담 또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어떤 유형의 상담을 막론하고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은 상담자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상담은 결코 내담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삶을 회복 할 수도 없으며, 어떤 치유의 사역도 진행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기독교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구원이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성령을 기본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야 한다.²⁴⁾

(1) 기독교상담과 성령

일반상담은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목표를 두지만 기독교상담의 목표는 두

가지로 내담자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에서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경의 활용과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상담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인이다.²⁵⁾

(2) 기독교상담자와 성령

하나님은 기독교상담자를 통해 내담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효과적인 기독교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의 방법으로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롬 8:14). 또한 기독교상담자는 상담현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는 과학적인 사람도 되어야 한다. 이는 즉, 내담자의 위기와 장애를 진단할 때에는 심리학적인 원리와 상담학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석하고 진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담자를 볼 때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다.²⁶⁾

(3) 성령의 역사와 내담자

상담 중에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보면 대부분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성격장애, 잘못된 습관, 중독증, 정신장애 등과 연관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들이 많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다수의 내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일상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성령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의 진행 중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또한 내담자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완전히 변화, 또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²⁷⁾

4) 기독교상담에서 성격의 변화와 성령의 역할

기독교상담사역에서 중심이 되는 성령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형식인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 평안이다.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는 진실한 회개와 기도가 있는 자기수련을 통해 새로운 영적 성장과 함께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새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²⁸⁾ 성격의 변화와 관련해서 성령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⁹⁾

(1) 성령의 역사와 성격의 변화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치유의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말씀, 안수, 기도, 믿음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4 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성격 상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는 성격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 상담의 시작이며, 두번째 단계는 성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회복의 과정으로 손상된 이전의 성격의 구조와 기능, 그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번째 단계는 인격전체의 온전한 목적을 성취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 된 목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의 목표는 온전함과 생명, 그리고 구원이며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로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먼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⁰⁾

(2) 성령의 방법과 성격의 변화

성령의 인도함을 기초로 영혼구원이 핵심목표인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미성숙한 성격과 문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 가르치 성령의 방법으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 :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기도, 회개를 통한 신앙적 훈련은 인간의 영을 계발하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깨닫고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

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둘째, 자기수련을 통해 :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 된 자기인 영을 발견하고 계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격려하는 것이다. 이는 즉, 자기발견과 자기수양을 위한 탐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선한 성격(모습)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미덕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5).

셋째, 거듭남을 통해 : 인간이 거듭남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부 갈등과 불안을 해소,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는 진실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영적성장과 함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넷째,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각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은 완벽해서 성격에 완전한 변화를 주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다섯째, 영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에게 선한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심리적 긴장과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개인적인 성숙과 능력 이외에도 영적 성장을 추구해서 성격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벧후 1:5-6).

Ⅲ. 닫는 글

현대인에게 있어 성격은 자신의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자기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수용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³¹⁾

일반상담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상담자 역시 내담자들이 성격의 문제로 힘들어 할 때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문제해결과 함께 영혼구원을 목표로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성숙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단 기간에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성경의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와 부족함, 한계성에 직면해서 이를 인정한 후에 기도와 간구, 회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복음에 근거한 성격과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내담자들의 성격변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찰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어떤 상담의 주제 없이 전반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실제 적용에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적용해 본다면 이 방면의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경미. "기독교상담과 치유."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 _____. 『이동행동수정』. 서울: 학지사, 2006.
- 김영근. "기독교상담과 성령."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 노안영, 강영신.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주계영.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베드로서원, 1998.
- 이현수. 『이상행동의 심리학』. 서울: 대왕사, 2002.
- 임창재. 『정신위생심리』. 서울: 형설출판사, 2002.
- 장선철.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동문사, 2004.
-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 제자원. 『그랜드 종합교리』.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
- 주현덕, 박세니. "혈액형이 사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혈액형별 사랑유형과 연애타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0권 (2006), 67-80.
- 채경선, 김주아. 『아동정신건강』. 서울: 창지사, 2007.
- 황규명. "기독교상담과 정체성."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 허혜경,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 Golden, W. Api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 Pervin, L. A. *Critical Analysis of Trait Theory*. Psychological Inquiry, 1994.
- Phares, E. Jerry.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1988.
- Ryckmam, R. M. *Theory of Personality*(7th ed.). CA: Woodworth, 2000.
- Simth, R. Maddi.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6th ed.). New York: Brooks/Cole, 1996.
- Walter, Mischel. 『성격심리학』, 손정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후주]

- 1) 노안영, 강영신, 『성격심리학』(서울: 학지사, 2003), 19.
- 2) 이현수, 『이상행동의 심리학』(서울: 대왕사, 2002), 46.
- 3) Golden, W. Api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28.
- 4) Simth, R. Maddi,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6th ed.)(New York: Brooks/Cole, 1996), 8.
- 5) Ryckmam, R. M., *Theory of Personality* (7th ed.)(CA: Woodworth, 2000), 5.
- 6) Pervin, L. A., *Critical Analysis of Trait Theory* (Psychological Inquiry 5, 1994), 103.
- 7) 강경미, 『아동행동수정』(서울: 학지사, 2006), 239.
- 8) Phares, E. Jerry,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1988), 246-247, 재인용.
- 9) 임창재, 『정신위생심리』(서울: 형성출판사, 2001), 195.
- 10) 이현수, 『성격이 건강을 좌우한다』(서울: 학지사, 2001), 97.
- 11) 임창재, 『정신위생심리』, 196.
- 12)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서울: 학지사, 2002), 508-09.
- 13) Walter, Mischel, *Introduction to Personality*, 손정락 역, 『성격심리학』(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71.
- 14) 강경미, 『아동행동수정』, 68, 재인용.
- 15) 채경신, 김주아, 『아동정신건강』(서울: 창지사, 2007), 119-120.
- 16) 허혜경,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서울: 학지사, 2002), 180.
- 17) Walter, Mischel, *Introduction to Personality*, 손정락 역, 『성격심리학』, 242-243.
- 18) 임창재, 『정신위생심리』, 214-217.
- 19) 장선철, 『현대인의 정신건강』(서울: 동문사, 2004), 85-6.
- 20) 제자원, 『그랜드 종합교리』(서울: 성서교재, 1997), 1030.
- 21) 강경미, “기독교상담의 치유”,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192-93.
- 22) 제자원, 『그랜드 종합교리』, 1024-25.
- 23) Paul D. Meier 외 4인저, 전요섭 외 5인 옮김, 『기독교상담심리학』(서울: CLC,

- 2004)(원서: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2003), 203.
- 24) 황규명,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44.
- 25) 김영근, “기독교상담과 성령”,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59-61
- 26) 김영근, “기독교상담과 성령”,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 64-5 .
- 27) 김영근, “기독교상담과 성령”,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 66.
- 28) 강경미, “기독교상담의 치유”, 『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193-94.
- 29) 제자원, 『그랜드 종합교리』, 1024.
- 30) 주계영,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베드로서원, 1998), 27-30.
- 31) 주현덕, 박세니, “혈액형이 사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혈액형별 사랑 유형과 연애타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20권(3), 2006, 67.

[Abstract]

Character Change and the Works of Holy Spirit
in Christian Counseling

Kyungmi Kang

(Ph.D., Korea Christian University)

The various elements including human emotions, behavior,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ch impact greatly on mental health are closely related to personality. Therefore, personality is an important element which decides whether an individual leads a healthy life.

The personality represents an individual, and generally a person is judged by his or her specific character. Therefore, to lead a healthy life, one has to understand one's own personality, and if one has a problematic character, one has to try to improve it, and try to build up a healthy and productive character, and also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racter of other people.

As with general advisers, Christian counselors can also offer help when clients are suffering with their conscience because of sin, or are experiencing a crisis resulting from their own problematic character. The utmost solution for all the sickness and suffering that mankind experiences is possible when one achieves maturity within oneself, and in the pursuit of love and forgiveness. However, because of man's original sin, change and recovery cannot be achieved by psychological treatment or counseling within a short period. First, one has to acknowledge one's own sin, deficiency and limitations, and then through prayer, earnest hope and repentance, one has to try to find and understand one's true self.

Furthermore, one has to restore one's relationship with God, who is the solution for all the problems in life, and develop a character and a view of life

based on the Gospel. Thus, Christian counselors must help their clients to obey God for spiritual salvation and to be born again, as well as for the purpose of problem solving

Hence, in this thesis, through the study of related literatures, the process of spiritual salvation and the methods of the Holy Spirit which can resolve and change the problematic character of the client, are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character, with the subject of “Character Change and the Works of Holy Spirit” in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 personality, Christian counseling, Holy Spirit, the role of Holy Spirit, spiritual salvation.